

무상급식 주민투표 D-30, 여야 엇갈린 대응

# 여, 당내 참여한 이견 ‘어정쩡’ 야, 복지 급제동 우려 ‘적극적’

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 
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 
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 내 첨  
예한 이견 노출로 아직까지 당론을  
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  
앙당 차원에서 적극 개입 방침을 밝  
히는 등 여야 대응이 극명하게 엇  
갈리고 있다.

한나라당의 경우 7명의 최고위원  
중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,  
나경원·원희룡 최고위원, 이주영 정  
책위의장 등 5명은 ‘지지’를, 유승민·  
남경필 최고위원 등 2명은 ‘반대’ 견  
해를 밝힌 상태다.

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쪽은 내년 총  
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‘무상  
시리즈’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 
입장이다. 주민투표 자체가 여야간  
복지 논쟁의 심판대가 될 수 있다고  
보는 것이다.

특히 서울시가 ‘전면적 무상급식  
안’과 ‘단계적 무상급식안’ 중 하나를  
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문안을 결  
정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‘단계적 무  
상급식’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으로  
서는 물러날 공간이 없다는 점도 적  
극 대응의 논리가 되고 있다.

하지만, 내년 총선·대선에서 ‘반  
(反)한나라당 정서’를 확산시킬 수 있  
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감  
도 만만치 않다. 주민투표에 대해 명  
시적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‘지원 행  
위’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 
관측도 같은 맥락이다.

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25일 “이  
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야권연대가 가  
속화될 수 있다”며 “또한 무상급식



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재래시장에서 김현미 사무수석부총장(일산서구)과 송두영(덕양울), 유은혜(일산동구) 지역위원장과 함께 물건을 사고 있다. /연합뉴스

중단으로 기분이 상한 유권자가 내년  
선거에서 ‘한나라당 반대’ 목소리를  
낼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반면, 민주당은 그동안 무상급식  
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했으나, 다음달  
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 
향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 
방침이다.

자칫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 
막힐 경우 무상 급식·보육·의료 등  
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·주거복  
지·일자리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  
주당의 ‘3+3’ 보편적 복지 구상 전  
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  
다.

민주당은 또 초등학교 전면적 무상  
급식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 
600억~700억원에 불과한 반면, 주민  
투표는 비용만 182억원에 달하는 ‘나  
쁜 투표’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민  
투표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는다면 민  
주당도 맞불작전으로 나설 가능성을  
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.

당 관계자는 “무상급식 주민투표  
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여  
권이 총력전에 나선다면 민주당도 가  
만히 있지는 않을 것”이라며 “투표에  
서 지면 ‘3+3’ 복지정책이 통째로 흔  
들릴 수 있기 때문”이라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민주당으로서 투표율이 33%를 넘  
지 않아 주민투표가 무위로 끝나는  
게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게 당 안팎  
의 대체적인 분석이다.

그러나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민  
투표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는다면 민  
주당도 맞불작전으로 나설 가능성을  
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.

당 관계자는 “무상급식 주민투표  
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여  
권이 총력전에 나선다면 민주당도 가  
만히 있지는 않을 것”이라며 “투표에  
서 지면 ‘3+3’ 복지정책이 통째로 흔  
들릴 수 있기 때문”이라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 한나라 최고위원 지역배려 관례 깨지나

호남·충청권으로 친이·친박계 인사 지명설 등 분분

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두 명의  
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조만간 단행  
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  
심이 모아지고 있다.

25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“최  
근 홍 대표의 측근을 만났는데 대표  
가 인선의 방향에 대한 결심을 굳혔  
다고 전했다”며 “다만, 그 내용에 대  
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 
있어 최고위원과 협의를 거칠 때까지  
는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 
말했다.

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내에서는  
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한나라당이 약  
세인 충청과 호남 지역 인사 한 명씩  
을 지명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  
다. 호남권 인사로는 정용화 전 청와  
대 연설기록비서관과 이정현 의원,  
김대식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

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. 충청권 인  
사의 경우 17대 의원을 지낸 홍문표  
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  
북도지사 등이 거론된다.

하지만, 홍 대표 주변에서는 이 같  
은 지역배려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 
전망도 나오고 있다.

우선 충청권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  
사권은 홍준표 대표가 행사하고, 나  
머지 호남과 영남 쪽 최고위원은 친  
박 측이 한 명을 천거할 것이라 관측  
이 나오고 있다. 이 경우 홍 대표의 친  
이(친이명박)계 인사인 홍문표 사장  
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점쳐지  
고 있다.

문제는 친박(친박근혜)계의 선택  
이 어렵다는 것. 호남권에서 친박 지  
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하자니 영남권  
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, 영

남권 친박 의원들 중 지명직 최고위  
원을 뽑을 경우, ‘영남파’이라는 비관  
을 뒤집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.

이에 대해 유승민 최고위원은 24일  
“충청권은 친박 몫으로, 호남은 친이  
몫으로 최고위원을 지명해온 것이 그  
동안의 관례”라고 못박았다.

또 다른 방안으로는 충청권만 지역  
적 배려를 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전  
문가 그룹에서 영입하거나 아예 지역  
배려를 하지 않고 두 자리 다 전문가  
를 영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 
있다.

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“집  
권 여당이 전국정당화에 대한 노력이  
보여주는 것이 호남에 대해 진정성을  
보여주는 길”이라며 “홍 대표가 무리  
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”고 예상했  
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 한나라 사고당협 20곳 정비 착수

조강특위, 호남·충남이 대부분 차지

총선 앞두고 공천과 직결 관심 집중

한나라당이 25일 조직강화특별  
위원회(이하 조강특위)를 구성하  
고 당협위원장인 공석인 사고 당  
원협의회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.

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 
당협위원장 인선은 공천과 직결되  
기 때문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  
되고 있다.

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조  
강특위는 김경준 사무총장과 이해  
훈·이춘식 제1·2 사무부총장이 당  
연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별로 황영

철(강원), 박보환(경기), 김호연  
(충청) 의원, 그리고 원외인 김문  
일(담양·곡성·구례) 당협위원장  
으로 구성됐다.

김 사무총장은 홍 대표 측근이  
며 이해훈 제1사무부총장은 친박  
(친박근혜)계, 이춘식 제2사무부  
총장은 친이(친이명박)계다. 황영  
철·박보환 의원은 중립 성향으로,  
김호연 의원은 친박계로 각각 분  
류되며 김문일 당협위원장은 정몽  
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친한 것으

로 알려졌다.

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당협은  
전체 245곳 중 20곳, 호남과 충남  
이 대부분이다.

물론 조강특위가 구성됐다고 당  
협위원장 선정에 곧바로 들어가는  
힘들 것으로 보인다.

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“총선을  
앞두고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면  
당사가 스스로 ‘공천을 받았다’고  
떠들고 다닌다”며 “사고 당협 중  
어떤 곳은 수년간 당협위원장이  
없던 곳도 있는 만큼, 조직안정이  
나 지역관리 측면에서 시급하게  
당협위원장을 정해야 할 곳만 한  
정해 논의하면 된다”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 조영택의원 “삼화저축銀 접대비 과다 지출”

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 
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5일 올해 초  
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삼화저축은  
행이 최근 몇 년간 접대비를 과다하  
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.

조 의원이 이날 예금보험공사로부  
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화저축  
은행의 연도별 접대비 지출 내역은

▲2008년 하반기~2009년 상반기 4  
억7000만원 ▲2009년 하반기~2010  
년 상반기 5억5000만원 ▲2010년 하  
반기~2011년 2월 23일 4억3000만원  
등이다.

이는 세계전문사이트 ‘재벌닷컴’이  
매출액 기준 상위 23개 저축은행을  
상대로 분석, 지난 6월 발표했던 같은

기간의 연도별 평균치인 ▲3억원 ▲3  
억1000만원 ▲3억7000만원 보다 높  
은 수치이다.

조 의원은 “2008년 5월28일의 경  
우 하루에 38건 2468만원이 접대비로  
지출됐다”라며 “평일(수요일)이었음  
에도 불구하고, ‘모 골프장 외’라고 표시된  
항목에 528만원이 적혀 있었으며, 그



외에 주로 고급  
음식점 등에서  
접대가 이뤄졌  
다”고 주장했다.

한편, 조 의원  
은 이날 전국금  
융산업노동조합  
으로부터 국회  
정무위 위원으로  
서 금융산업 발전  
을 도모하고, 최  
진행되고 있는 이  
명박 정부의 금융  
장악 저지 등에 앞  
장 선 공로로 감사  
패를 받았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나경원 최고 “문화·예술 재정 2%로 확대해야”

한나라당은 25일 정부 예산 중 문  
화·예술 분야의 비중을 2% 수준으로  
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  
기로 했다.

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 
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
에서 “문화분야 재정은 전체 재정의  
1.12%로 경제협력개발기구  
(OECD) 주요 회원국 평균 2.20%의

절반에 불과하다”면서 “2000년 문  
화재정 1%를 달성한 뒤 계속 제자  
리걸음으로, 파리의 한국문화원은  
반지하 방이지만 일본문화원은 에펠  
탑 주변의 독립된 건물 한 채”라고  
지적했다.

그는 “한류는 기름에 정부가 불  
을 붓기 위해, 당 차원에서 문화재정  
2% 확대 달성을 책임지고 추진해야

한다”고 덧붙였다.

남경필 최고위원도 “제조업의 고  
용개발 계수는 10억원 당 9.2명인데,  
콘텐츠산업은 12.2명, 관광산업은 15.  
5명으로 같은 돈을 투자해 훨씬 많은  
일자리가 나온다”며 “콘텐츠와 관광  
산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 대비 0.16%  
인 이런 상황은 안된다.

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문화·  
관광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 방안을  
논의해달라”고 요청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**아이엘리시아**  
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-0187289

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 
**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!**  
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.

대·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!  
150석, 92석, 52석, 32석, 24석,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.

평 일	영업 시간	성 인 (중학생이상)	취학어린이 (초등학생)	미취학어린이 (5세~7세)	토·일 공휴일	영업 시간	성 인 (중학생이상)	취학어린이 (초등학생)	미취학어린이 (5세~7세)
LUNCH	11:30~15:30	25,000원	12,000원	8,000원	LUNCH	11:30~15:30	31,000원	18,000원	12,000원
DINNER	16:00~22:00	31,000원	18,000원	12,000원	DINNER	16:00~22:00	31,000원	18,000원	12,000원

★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*062)671-1199**  
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

# 옥상·외벽·내벽·주택 방수

## 전문방수 방수

**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.**  
“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”

-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
- 외벽, 내벽, 지하실, 화장실
-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
-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
-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
-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.

— 가격이 저렴하여,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.  
— 고품질,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.  
—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.  
—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.

역사와 전통의 **미화표**를 꼭 확인하세요...

ENG, 이앤지 방수, 바닥 전문생산업체  
**이앤지 방수주** 062-367-7755  
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-29